

애니 베어드 소설의 개화기 문학사적 의미 -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중심으로 -

차 봉 준*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일생을 마친 개화기 선교사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한국 선교에 일생을 바친 인물로서, 초창기 부산 및 대구 지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긴 이후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한국 근대 교육의 확립에도 기여도가 매우 높다. 본 연구자는 이처럼 초창기 한국 선교사의 주요 인물인 애니 베어드의 또 다른 업적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는 그녀가 남긴 국문소설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이 지닌 개화기 문학적 의미를 규명함이다. 이를 위해 작품에 드러난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분석했으며, 이를 개화기 계몽의식의 측면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두 작품은 당대 봉건적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병폐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기독교 윤리 의식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개화기 계몽소설들과 동일성을 갖는다. 아울러 이 두 작품을 소설 장르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에서 찾고자 했으며, 동시대 다른 선교문학과 비교함으로써 그 문학적 성과를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애니 베어드는 이방인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놀랍고, 더 나아가 당대 조선사회가 안고 있던 부조리를 전통적 소설양식의 친숙성과 근대문학 이행기에 나타난 과도기적 속성들을 적절히 구사하여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특히 작품 속에 두드러진 선교문학적 계몽성은 당대 개화기 소설들이 공유하고 있던 근대적 계몽의식과 동일성을 갖고 있으며, 그의 소설에 형상화된 서사적 특성들이 당대 서사문학과 양식적 흐름을 같이한다는 사실에서 개화기 소설로서의 연구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애니 베어드의 소설을 한국 문학사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할 이유로 작용할 것이며, 아울러 그 결과로 인해 개화기 문학사의 지평 확대가 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고영규전, 개화기 소설, 기독교 윤리, 부부의 모본, 선교문학, 애니 베어드.

*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조교수

2012년 11월 9일 접수, 12월 11일 최종수정, 12월 16일 게재확정

I. 들어가는 글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한국명: 안애리)는 1864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출생하여 한국 땅에서 생을 마친 개화기 한국 선교사다. 그녀는 웨스턴여자대학(1883)과 하노버대학(1884)을 거쳐 워싱턴 대학(1885)을 졸업한 후 남편인 윌리엄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 한국명: 배위량)와 함께 한국 선교에 투신했고, 일생을 복음 전도와 한국 교육의 근대화를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특히 초창기 한국 개신교의 선교를 주도했던 인물들 대부분이 남자 선교사 중심이었던 사실을 감안할 때, 애니 베어드의 선교는 유교적 질서가 팽배했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제약성을 극복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도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근대적 여성의 표상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할 수 있다.

베어드 부부가 한국에 온 것은 1891년이다. 그들은 일본을 거쳐 인천에 도착한 후, 그해 9월부터 부산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896년 4월 대구로 선교지를 옮겨 제일교회와 계성학당(현 계명대학교)을 설립하는 등 한국 선교사에서 부산, 대구 선교에 끼친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 베어드 부부는 1896년 12월에 서울로 선교지를 옮긴 후 경신학당에서 교육활동을 지속했다. 이후 1897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창설하여 이 학교를 1906년 9월 숭실대학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최초의 근대적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그들의 선교사역은 한국 초창기 개신교의 역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업적들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이미 나름의 성과와 체계성을 갖추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을 생략한다.¹⁾

본 연구는 애니 베어드의 생애에 주목하여 그녀가 남긴 성과에 대한 소개와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한국 교회사적 관점의 평가와도 일정부분 거리를 둔 체계적 개화기 근대문학적 측면에서 그 성과와 의의를 규명하려 한다. 이러한 조명이

1) 베어드 부부의 선교사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그들 부부의 선교 사역 전반을 사적으로 조망한 연구(박용규, 2009: 37-94; 박정신, 2009: 9-36; 유영렬, 1998), 둘째는 교육 및 문서 사역에 대한 연구(김명배, 2009: 95-152; 김영환, 2011: 151-178; 류대영, 2010: 127-157; 변창욱, 2011: 317-340; 이상규, 2009: 153-186), 그리고 끝으로는 애니 베어드의 선교 사역과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김경완, 2009: 231-286; 김인섭, 2008: 23-46; 이인성, 2009: 187-230)로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애니 베어드에게서 문학적 성취의 잣대를 적용할 만한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텐데, 다행히 두 편의 소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²⁾ 애니 베어드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이라는 두 편의 국문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들은 서사적으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설파하는 선교문학의 목적에 충실한 작품이다.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당대 봉건적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병폐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기독교적 윤리의식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개화기 근대소설들과 동일성을 갖는다. 아울러 서구의 근대적 서사양식에 친숙했던 작가가 우리의 전통적 산문양식을 혼합하여 지극히 한국적인 의식을 담은 작품을 창작한 데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도 그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문학 텍스트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예술적 심미성보다는 효용적 목적성이 지나치게 부각된 까닭에 같은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에 비해 문학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때문에 지금까지 애니 베어드의 소설에 대한 관심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인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에 대한 앞선 연구는 김경완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고영규전』을 “인생의 존재 의미를 추구하던 인물이 헛되이 살다가 기독교적인 변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데 귀결(김경완, 2000: 101)”되었다고 보았고, 『부부의 모본』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한 두 부부가 모친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낙원과 같은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기독교 결혼관의 소중함(김경완, 2000: 116)”을 보여준 소설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병학은 개화기 소설의 기독교 수용 양상 연구에서 애니 베어드의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을 가정 구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그는 『고영규전』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딸만 내리 셋을 나은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리는 주인공 ‘고영규’, 그리고 이를 기다리며 미신숭배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아내 ‘보배’와 시할머니의 삶에 대해 “당시 유교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오는 ‘남아선호 사상’과 한국인의 풍습에서 온 ‘미신숭배 사상’을 그대로 재현하여 이들 폐단을 지적함으로써, 새로운 기독교의 가정상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김병학, 2004: 173)”이라 평가했다. 또한 『부부의 모본』에 대해서는 기독교

2) 박정신은 애니 베어드에 대해 “한때 작가 지망생이었던 애니 베어드는 구한말 조선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에 터하여 조선의 문화를 기독교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변혁하기 위해 자신의 글재주를 활용”(박정신, 2011: 88)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교적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룬 주인공 ‘박명실’과 ‘양진주’의 삶,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사랑과 인내에 기초한 가족 관계의 소중함을 제시하고 신앙적 삶의 실천을 모범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참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문학적 아름다움을 통해 형상화한 작품(김병학, 2004: 181)”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에는 『고영규전』에 수록된 두 소설 외에 애니 베어드의 또 다른 저작 『한국의 새벽: 극동에서의 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 *Daybreak in Korea: A Tale of Transformation in the Far East*』(1909)에 대한 연구도 눈에 띈다. 이 책은 애니 베어드가 뉴욕에서 출간한 영문소설인데, 전통적 가정에서 자란 주인공 소녀(보배)가 어린 나이에 몸값을 받고 신부로 팔려가면서 겪게 되는 인생의 우여곡절, 그리고 기독교를 접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극적 전개가 아홉 개의 장으로 나뉘어 구성된 소설이다. 이 소설에 대해 김인섭은 탁사 최병현의 『성산명경』과 비교하면서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의 두 유형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는 회심의 유형을 점진적 회심과 급격한 회심의 두 가지 양태로 전제하면서 베어드의 작품을 ‘급격한 회심’의 과정을 소설화한 작품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주인공인 ‘보배’와 ‘방만식’, 그리고 점쟁이 ‘고판수’와 무당 ‘심씨’의 회심 과정을 텍스트의 서사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이들이 한 순간의 감동에 의해 갈등과 고통이 일거에 해결되는 급격한 회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렇게 회심을 한 인물들은 ‘사변적 진실’의 각성이 아니라 ‘경험적 진실’을 실천, 전파하는 증인들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는 오늘날까지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이라 할 수 있고, 한국 기독교 회심을 다룬 문학의 변함없는 모티프(김인섭, 2008: 41)”로 규정했다. 아울러 영문학자인 이인성도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의 세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글에서 작가의 세 소설을 모두 언급하면서 외국 선교사가 영어, 혹은 한국어로 한국을 소재로 쓴 소설들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갈등과 소통을 문학 양식을 빌어 진솔하게 표현(이인성, 2008: 248)”한다고 이해하면서, 따라서 베어드의 세 소설은 “서양 선교사의 눈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과 종교적 양상들이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묘사(이인성, 2008: 248)”되어 소설로서의 허구와 당대의 현실이 잘 조화된 작품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애니 베어드의 소설이 갖고 있는 문학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가

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기독교 선교문학의 희소성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소중한 결과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에 대한 우리 문학사의 언급은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이 지닌 근대문학적 속성을 서사 분석을 토대로 궁구해 나가고자 한다. 벽안(碧眼)의 작가가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가 아닌 언어, 즉 한국어로 서술한 특이한 창작의 서사물이 당대의 전통적 서사양식과 근대적 문학양식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구조물 속에 담으려 한 주제 의식이란 서구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어떠한 모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인가를 분석함으로써 애니 베어드의 개화기 문학사적 의의를 한 단계 더 진척시키려 한다. 다만 애니 베어드 소설의 개화기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개화기 소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애니 베어드의 소설이 발표된 1910년대는 이른바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 엘리트들에 의해 단편소설의 장르가 형성되어 가던 시기이다. 대부분 일본 유학을 경험했거나 유학중이었던 지식인 엘리트들은 국권을 박탈한 나라에 가서 비로소 새로운 서구문명의 충격을 받고 돌아왔다. 이러한 자아 각성을 바탕으로 이들은 개성의 신장, 개인의 행복, 자유평등사상을 자각하기 시작했으며, 근대화의 장애요인인 이전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 도전하기 시작했다. 즉 유교적 이데올로기를 서구 이데올로기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과거 조선 사회의 제도적 모순과 인권 유린에 대해 항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삼중지도의 여권 유린, 조혼으로 인한 개인 행복의 박탈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논문이나 소설의 양식을 빌어 일깨우려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윤홍로, 1994: 85-86).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볼 때 애니 베어드의 소설은 당대 개화기 소설의 반봉건적 비판의식 및 서구적 근대의식의 표방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10년대 소설 창작의 선구적 주역들이 서북지역 출신의 일본유학생들이자 기독교적 영향권에 들어 있던 지식인이었다는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평북 정주 출신의 이광수와 평양의 김동인, 그리고 진남포의 전영택 등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기독교적 지성이 근대소설의 반봉건적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윤홍로, 1994: 86). 이런 측면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던 애니 베어드의 문학 활동도 이 시기 개화기 문학의 일반적 흐름과 특성의 자장 안에 머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표상과 선교 문학적 계몽성

애니 베어드의 『고영규전』에 수록된 두 단편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구습을 타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는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에서 비롯된 소설이다. 따라서 각각의 소설에는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으며, 당대 한국사회의 폐단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작가의 눈에 비친 한국은 미신숭배, 조혼, 가부장적 질서, 남아선호 등 토속 신앙과 유교적 세계관이 노출한 폐단이 극심한 땅이었다. 때문에 이러한 한국 문화는 분명한 극복의 대상이었고, 이를 변혁할 주체는 기독교적 가르침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에서 애니 베어드는 대중적 파급력이 가장 유연한 수단의 하나인 문학적 장치를 선택한 것이다. 본 장에서는 두 소설의 서사를 차례차례 밝아가면서 비판의 대상인 구습에 대한 인식의 층을 확인하고, 아울러 선교 문학으로서의 계몽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고영규전」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제2장으로부터 제4장에 이르기까지의 서사에서 당대 사회가 노출하고 있는 여러 구습과 악행들이 그려지고 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의 남아선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인공인 고영규와 길보배는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갈등이 깊어간다. 물론 “영규가 이안희를 처음볼때부터 슬혀호야 그슈식과 눈이충명흔것과 성품이 온순헌거슨 생각지아니호고 다만그낫헤 죽은씨와 입이좁넓은 것만보고 뭇다고 멸시(236)”³⁾하는 데서 부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정을 갖지 않은 행태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내에 대한 더욱 노골적인 불만의 원인은 결혼 후 사 오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결국에는 아내를 향하여 ‘돌계집’이라 멸시하며 외입과 학대를 일삼는다. 또한 우여곡절 끝에 첫 아이를 출산하지만 기대하던 아들이 아니자 영규는 보름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할머니마저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세 번째 아이마저도 딸이 태어나자 영규는 아내에게 발길질을 하며 욕을 퍼부은 후 행장을 꾸려 집을 나가버린다. 이처럼 당대 한국의 가치 질서에서 여성은 온전한 인격적 주체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였다. 그리고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마치 크나큰 중죄처럼 인식되어 온갖 악행과 멸

3) 이하 본고에서 인용하는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은 소재영·김경완 편 (1999), 『개화기 소설』, 숭실대학교 출판부의 표기를 따른 것임을 미리 밝히며, 쪽수만 표기하도록 한다.

시마저도 당연히 하는 비정상적 질서가 규율화된 사회였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뿌리 깊은 남녀 차별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부부의 모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혹이 널으디 안희의 말은 듯지말나호고 또 만일 안희를 갖가히 호는자는 조고마흔 일밋기는 못한다 호나”(249)와 같은 여성에 대한 비하는 오랜 유교적 질서의 그릇된 이데올로기가 구축해 놓은 모순이었다. 이와 같은 남녀차별로부터 기인한 남아선호 의식의 폐단에 대해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한 변혁을 역설하고 있다.

애니 베어드가 문제 삼고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적 폐단은 현세적 복을 기구하는 미신숭배의 구습이다. 특히 여성들의 생활 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미신에 대한 의지가 『고영규전』의 인물들에게도 투영되고 있다.

(1) 호로는 보비가 그식할만니에게 엇더케호면 아들을 나켓소 무르니 식할마니 더답호디 절에가서 부처의게 빅일기도나 호여보자 나도전에 오히를낫치못호야 빅일기도호대 원대로 아들을 나하타호니 보비가 그말을듯고 날마다 향을가지고 절에놀나가서 부처의게절호고 바는말은 아들을 낫케호쇼셔호고 또중의게 쌀과돈을주며 이처럼빅일기도홀동안은 그몸을 정결케호라고 락일 목욕호며 고기도먹지 아니호더니 기도를필호후에 못춤 제게잉티호줄을 씨듯고 대단히 깃버호야 막읍에 트람이 심겼더라 (236-237)

(2) 이곳치어려운중에 괴로운거슨 보비가 쏘만낫는것과 또 남편이 저를버리고 나아가는거시 다귀신의게 죄를지어 그러호줄 알고 더욱귀신을 공경호야 물길너갈때에는 밥을가지고 가서 물에더지고 나무를 지나 갈때에도 치석헌겁과 밥을썩러미여 달며 또집에잇슬때에는 주왕귀신의게 이곳치정성으로 위호며 호갓비는거슨 우리남편이 도라오게 호야주읍쇼셔 (240)

초기 한국 선교를 위해 투신했던 선교사들이 직면했을 여러 난관들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문화적 도전이 미신에 대한 맹목적 행위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물론이거니와 근대적 사고의 확산에도 걸림돌임에 틀림없다. 애니 베어드의 눈에 비친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세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인용문 (1)은 남편 영규로부터 돌계집 취급을 당하던 보배가 시할머니와 나눈 대화 장면이다. 여기서 두 여인은 미신적 수단에 의지하여 수태를 갈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에 지극한 정성을 쏟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인용문 (2)의 경우, 바라던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내리 셋을 낳자 이에 분개한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데 대해 보배가 보인 행동이다. 여기서도 보배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귀신에게 죄

를 지은 탓으로 여기며, 때문에 더욱 정성을 다하는 미신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신행위가 얼마나 근원적이었는가는 심지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제4장의 서사를 참고하자면, 보배의 삶을 공황히 여기던 이웃여인이 예수를 믿을 것을 권면한다. 이때도 이웃여인은 예수에 대해 ‘귀신보다 능력이 만호신이’라고 소개하며, 이에 보배는 “집에 도라와서 그날부터 밤마다 나아가서 그릇에 맑은물을 써노코 칠성에게 절하고 구호기를 하느님씩서 나로호여곰 예수를 밋게호야 주옵쇼셔”(241)라며 기구한다. 이는 초창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전래의 미신적 요소에 견주어 이해되고 있었음을 반영하며, 아울러 기복적 대상으로서 이해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처럼 당대 한국의 민간 풍속에는 미신을 숭상하는 의식이 뿌리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과 행위는 결국 기독교적 신앙체계와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인이었다. 애니 베어드의 『고영규전』에는 이러한 한국 문화의 폐단을 지적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계몽적 비판의식이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에는 당대 한국사회의 문화적 폐단이 몇 가지 더 비판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른바 조혼이 지닌 문제점이라든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혼제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가족 질서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식,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에 견주어 볼 때 시급히 변혁되어야 할 구시대적 풍속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부부의 모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박명실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기독교적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인물이다. 그는 결혼을 할 나이에 이르러 “장가가는일은 사름의게 춤 큰일이니 내가 엇더케 호여야 이일을 감당호며 또 엇더케 이혈기만코 강포호몸과 므음을 다스려서 내게 부탁호는 연약호 처녀와 덕당케 훌가”(249)라는 문제로 고심한다. 기존의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유교적 세계관에서 볼 때에 박명실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놀라운 변모임에 틀림없다. 앞서 살펴본 『고영규전』의 영규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러한 명실의 인식은 새로운 시대의 표상으로 읽혀지기 마땅하다. 즉 애니 베어드는 ‘박명실’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전통사회의 가부장적 사고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기독교적 윤리관에 바탕을 둔 결혼관과 가족관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인물을 한국 사회에 던져놓은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 계몽적 의도는 다음에 소개하는 『부부의 모본』 마지막 대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새로혼인하야 비필된 부부들이 장춧 혼인홀 남녀들이 내경계하는말을 드러보라 사람이 혼인홀 중에 혼인하는거시 데일중대하거시니 그 비필마다 그일이 잘되기를 비탈뿐아니라 무슨묘칙을 배프려야 홀지니 이 묘칙은 부부들이 다 서로 잇기고 서로 스양하며 피츨 조복하야 용서하며 서로 춤고 견디는거시오 또 지어미 된 차는 그 지아버의 묘화하고 뉘워하는거슬 알고 아는대로 제의 형지 거동과 집일을 잘 단속홀거시오 지아버 된차도 지어미에게 정의를 배프는것 밧기는 그 묘음을 감동케홀 권능이 업본줄 알터인디 도로혀 지아버 된차는 제주머귀 힘만밧고 또 지어미된이는 그 지아버를 거스리는것과 상거가 얼마나 크리오 이 경계대로 형하면 부부가 후 세상 락원에 드러가서 영원한 복을 누릴뿐만 아시오 이류츄흔 세상에 잇슬째라도 락원을 돈들고 그 가온디 잇슬 수 잇스리니 불구에 온조선나라에도 이곳흔 금슬지락으로 집집이 치우기를 비라노라 (256-256)

비록 『부부의 모본』이 전통적 혼인관이 지닌 폐단에 국한된 서사를 전개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전통 사회가 지탱해 온 구시대적 세계관, 이른바 유교적 질서가 굳건히 구축해 온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도전과 해체를 이면에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새 시대의 가치관으로 제시한 기독교적 세계관은 부부의 화목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땅을 금슬지락의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에는 문화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계몽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선교문학으로서의 가치가 더 한층 고조된다.

III. 서사적 양상을 통해 본 근대소설 이행기로서의 특성

현재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영규전』은 1911년 경성 중로 야소교서회(耶蘇敎書會)에서 발행된 애니 베어드의 유일한 국문소설집이다. 표지에는 『고영규전(高永規傳)』이라 인쇄되었고 속표지에는 ‘TWO SHORT STORIES by MRS W. M. BAIRD’라는 영문 제목과 지은이가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지은이와 발행인 모두가 이 두 편의 저작이 근대적 양식으로서의 ‘소설(小說)’이라는 뚜렷한 인식하에서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자료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책은신자가볼만호교회소설이온디즈미잇는두가지이야기를기지하엿스니흐나흐고영규라하는 사람이그안히를엇터케뉘워하야구트하며구축하엿다가쥬를밧은후에통회조복하고다시회락에가뎡이된것과돌지는귀호모범이될만한박명실이라하는사람의스실인디그안히의게드하야극진히사랑하며보호호고화락하면원만하가뎡에볼만하이야기니특별청년된이의볼만하소설이라간스이화본이잇

서실지관광이됩니다폐지는三十六이오덩가八전이오며발미소논이칙에광고훈일곱곳칙사의다다수
구남호시오4)

인용문은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 『신학지남』 1919년 1월호에 수록된 광고 문구다. 1918년 3월에 창간되어 당시에는 계간으로 발행되던 이 잡지는 이미 9년 전에 발표된, 그리고 작가가 작고한 지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소설에 대한 광고를 통해 독자들의 독서를 권하고 있다. 이는 요즘처럼 쉽게 발표되고 또한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는 작품이 아니라 당대 기독교 독자층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작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 광고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기를 ‘신자가불만흔교회소설’, 혹은 ‘청년된이의불만흔소설’이라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두 작품이 서사 양식으로서의 ‘소설’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더 나아가 전래의 소설 양식과는 또 다른 양상의 근대적 요소를 띄고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지닌 문학적 탁월성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삼더라도 애니 베어드의 저작 가운데 한국소설의 범주에 포함될 성과를 남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이 마땅하다. 이견이 있겠지만 한국 근대소설의 출발을 알린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된 시점이 1917년임을 감안할 때 이 보다도 훨씬 앞선 시기에 애니 베어드는 전통적 서사 양식으로서의 고전소설과는 또 다른 면모의 새로운 소설적 시도를 우리 문학사에 상재해 놓았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필자는 애니 베어드의 두 저작이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근대적 소설이기보다는 근대소설 이행기의 소설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전제로 삼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제에 동의한다면 다음으로는 과연 두 텍스트가 근대소설 이행기적 양식으로서 지닌 특성이 어떠한가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개화기 소설사에서 지니는 의미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두 소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소설적 양식은 회장체(回章體) 형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두 편 모두 ‘화설’이라는 고소설의 장면전환 용어를 사용함과 아울러 동일 시간대 다른 공간의 사건을 병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만 이전 시기의 회장체 소설들처럼 각 장의 제목과 요약적 제시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두고 볼 때 고소설

4) 『신학지남』, 1919년 1월호 광고면 참고.

의 양식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던 시기의 특성을 두 소설도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소설 구성의 주요소인 인물과 배경에 대한 세밀한 제시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먼저 『고영규전』의 경우, 제1장에서 주인공 영규의 어린 시절의 면모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구성 단계상 발단부에서 두드러지는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건의 주된 배경으로서의 시간 및 공간에 대한 묘사가 『고영규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주인공 고영규는 산골 가난한 집에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할머니 슬하에서 어렵게 자라난 인물이었다. 어려서 몇 해 동안은 학당에 다닌 적도 있었지만 가난으로 인해 공부를 폐하고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농사일을 돕는 것으로 나날을 보낸 인물이었다. 이처럼 궁벽한 산골에서 세상의 이치도 깨우치지 못하고, 학식도 쌓지 못한 고영규지만 인생에 대한 나름의 회한과 성찰에 깊이가 있는 비범한 인물의 자질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 으헝가 혹 한가흠째에는 큰바회것헤나 나무수풀가온디 나아가 팔을 의지햐야 눕고 밋옴이 공중에 찌서 여러가지일을 생각햐다가 홀연히 공중에 솟긋치 흰구름이 이리더리 찌든니는 거슬 보고 밋옴에 생각햐기를 더겨서 무어시며 어더로오고 어더로가는가햐고 또 그것헤 나무우헤 잇는 아름다운 새와 그쳐량햐 소리를 듯고 밋옴에 더긋치쓸디 업는새라도 고흠 의복을넙고 쳐량햐소리를 햐는겨시 엇집이노홀시 또 수풀사이에 경첩햐고 아름다운 노루가 왕리흠을 보고 그햐는 생각은 사름이란 거슨 이 증성보다 더나흔겨시 무어시냐 하더라. (234)

고영규는 “엇더케 햐여야 도흔 일을 햐햐고 후세상에 도흔 곳으로 갈 방칙을 7러 칠가”(235)하는 어린 나이 치고 꽤나 고차원적 사색의 면모를 보인다. 인용문에 두드러진 것처럼 그는 공중에 떠다니는 흰구름과 나무 위에서 쳐량햐 우짖는 새소리, 그리고 수풀 사이를 오가는 노루 등속을 바라보며 인생을 성찰함과 더불어 본인의 처지를 비판한다. 또한 “구름과긋치 공연히 세상에나셔 얼마동안 끈고히 류리햐다가 도라갈째에는 이세상보다 더어려운곳으로갈가 근심”(234)하고, 세상 사람들이 음주가무, 잡기 등에 빠져 좋지 못한 행실만으로 일생을 행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엇지햐면 이보다 나홀가”(235)하는 근심으로 식음도 전폐하는 사려 깊음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인물의 형상화는 고전소설의 주인공에서 전형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의 비범성에 기댄 측면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영규의 인물됨은 이후 성장의 과정 속에서 희석되는데,

“춧츠 그 혈기와 육테가 장성흐는디로 신령흔뜻슬 더싱각지 아니흐고 이세상에 있는 것만 탐스럽게 녀이”(235)는 평범하고 문제적인 인물로 급격히 전환된다. 때문에 다음 장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고영규로부터 비롯된다. 이처럼 긍정적이었던 인물이 갑자기 부정적 인물로 변모하게 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상황 제시나 인과적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 고영규의 배필인 길보배의 인물됨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보배 역시 전반부의 고영규와 마찬가지로 행실이 매우 바람직하다. 어릴 때부터 많은 아우를 도맡아 키우고 집안일 건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봉건시대의 전형적 여성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물이다. 다만 일찍이 부모들에 의해 정혼한 고영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신을 시집보낼까 걱정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본격적인 혼담이 오가기 시작하자 피병까지 부릴 정도로 극심한 부담감을 느끼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시집을 간 후에는 시할머니와 남편을 극진히 섬기며 집안일도 흠잡을 데 없이 잘 해나가는 현모양처의 전형적 인물이 보배다. 이처럼 『고영규전』에 그려진 두 중심인물은 일반적으로 고소설에서 흔히 유형화된 인물의 형상화를 답습하고 있는 전형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애니 베어드가 이 소설을 창작함에 있어서 우리 문학의 구조적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애니 베어드의 소설은 전개 방식의 측면에서도 고소설의 일반적 특성인 ‘행복-고난-행복’의 구조를 취하고 있음과 부분적으로 환몽구조의 양식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고소설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고영규전』에서 보배는 혼인과 더불어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된다. 즉 보배의 입장에서는 혼인 이전의 시기가 비록 가난한 집안의 여식이긴 했어도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슈식과 눈이 총명한 것과 성품이 온순한 거슨 싱각지 아니흐고 다만 그 낮헤 죽은씨와 입이 좀 넓은 것만보고 뵈다고 멸시”(236)하는 남편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불행의 과정을 걷게 된다. 이후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당하는 수모, 어렵게 출산한 아이들이 모두 딸이라는 사실에 가해지는 핍박과 이어지는 남편의 가출, 가장이 없는 살림살이와 노망든 시할머니를 봉양함에 따르는 역경 등은 고소설의 전개 양식에 일반화된 고난의 과정에 부합한다. 이러한 양식적 특성은 고영규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집을 떠난 영규의 앞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의 허랑방탕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는 서울에 도착한 후, 외입 잡기로 세월을 허송

하고 투전으로 돈을 다 날린 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처럼 『고영규전』은 두 인물의 삶 모두에 고난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결론에 이르러 화해의 국면으로 행복한 결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적 전개는 『부부의 모본』에서도 발견되는데 아들 내외의 금슬지락을 시기하는 시어머니의 질투와 훼방이 이에 해당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또 하나의 소설적 장치는 앞서 언급한 환몽 구조의 차용과 행복한 결말로의 전개과정이다. 『고영규전』은 제3장에서 제4장에 이르기까지 고영규의 회심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간다.

전후에 잘못된 일을 탄식하며 다시 어려슬때와갓치 여러가지 이상한 생각이나는거슨 사름이 란거시 어디로 브터오고 어디로가며 또 엇더케하면 선악을 분별하야 선흔거슬 툃홀수잇스며 또 엇더케하면 정결흔몸과 신련흔 므음을 엇을수잇는가하며 또 내가 옥에서 나아가게되면 산에잇는 절로가서 중이된던지 혹종용흔 산곡으로 드러가 기도를흐던지 흐리라하고 므음에 베르더니 (238)

인용문은 옥에 갇힌 고영규가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며 뉘우친 내면의 고백이다. 그런데 이 내면의 깨달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미 제1장의 도입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의 고영규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새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숲속을 오가는 노루를 보며 사색하던 정결하고 신령한 삶에 대한 추구의 회복이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며 참된 삶의 의미를 서서히 깨달아가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반성과 회심은 전도자를 만남으로써 가능해진다. 옥중에서 고영규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칠일마다 찾아오는 전도자의 설교를 통해 서서히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고, 전도자를 통해 얻은 성경을 읽음으로써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 결국 집에서 보내온 돈으로 뇌물을 써 옥에서 풀려난 고영규는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꿈에서 하늘에서 보낸 자(천사)를 만나 죄사함을 얻는다. 특히 3장에서 꿈속에서의 깨달음과 영적인 존재와의 만남은 당대 고전소설류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몽자류 계통의 영향과 환몽구조의 소설문법을 이 작가도 적절하게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5장에서는 두 부부의 재회와 본격적인 회심이 이루어지며 결말을 맞는다. 제3장의 끝부분에서 고영규는 꿈속에서 만난 사자를 통해 진정한 죄사함을 받고 거듭 태어난 영적 체험에 도달한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와 재회하

며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위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며 “일기락원에 금실지락을 일우”(242)게 되며, 아울러 고영규는 주변에도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이러한 결말은 역시 고전소설에서 흔히 보아온 대로 악인이 개과천선하여 선한 삶으로 변모하고, 또한 행복한 결말을 통해 독자들에게 교훈성을 확보하려는 전통적 서사 양식을 답습한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이상의 서사를 놓고 볼 때에 이 두 소설들이 비록 낯선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창작된 소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전통적 문학양식을 매우 훌륭히 구조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당대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전통적 서사양식의 답습에만 머물지 않고 나름의 변모된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문어체적 표현이 주를 이루면서 완전한 언문일치로 나아가지 못한 점, 회장체 방식의 구성, 행복과 고난의 반복이 보여주는 구조적 단순성 등이 본격적인 근대소설 양식으로는 흠결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주체로서의 ‘개인’이 초점화되기 시작한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인간상의 구현이라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은 전통사회의 고소설에서 근대적 양식으로서의 소설로 넘어가는 과정의 양상을 우리 문학사에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의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IV. 동시대 선교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본 문학적 성취

애니 베어드의 선교소설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이 선교적 동기에서 창작된 소설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런 이유에서 문학적 성취감이 다소 낮게 평가됨을 부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동시대에 발표된 또 다른 선교소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이 작품이 놓여 있는 문학적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한국 문학사에서 종교적 동기, 혹은 주제의식 아래에서 발표된 소설들의 문학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쉽게도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소설 문학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인의 인식에 있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본래적인 사유체계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더구나 기독교의 전래가 시기적으로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소설들, 그 중에서도 선교적 목적의식이 노골적으로 표방된 소설에 있어서는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논하기가 여러 모로 부족함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이 개화기 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의미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이 시기에 발표된 또 다른 선교소설과 비교하고자 한다.

필자는 애니 베어드의 선교소설이 지닌 문학적 성취를 조명하기 위해 탁사 최병현⁵⁾의 『삼인문답』과 『성산명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최병현이 남긴 다수의 저작들 중에서 비교적 문학적 양식에 근접한 텍스트가 이 두 편의 저술이다. 그 중에서도 1912년 <조선야소교회서>에서 발간한 『성산명경』은 1907년 『신학월보』(제5권, 1호~5호)에 연재했던 『성산유람기』를 수정·보완한 작품⁶⁾으로서 소설로 간주하더라도 무방할 만큼 문학적 요소가 다분하다. 그렇지만 최병현의 소설 역시 개화기 문학사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바가 없다. 그것은 이 소설이 아직까지는 근대적 인간의 자기 해방적 성취를 구현하는 근대소설의 구도와 거리가 멀 뿐더러, 관념적 성격의 논증적 대화기 서사를 압도해 나가는 소설 구도상의 취약성, 그리고 기독교의 일방적인 우위로 종결되는 대화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양진오, 2006: 230). 그러나 기독교를 중심으로 여타의 재래 종교들, 즉 유교·불교·도교와의 우위성을 변증함으로써

5) 탁사 최병현(濯灑 崔炳憲, 1858-1927)은 몰락한 양반가문에서 태어나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면서도 한학을 통해 유학적 소양을 쌓은 구한말 지식인이다. 처음에는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꿈꿨으나 임오군란 근간의 혼탁한 정국에 좌절한 이후 기독교로의 개종을 하게 된다. 김진오(1927: 99)에 의하면 최병현이 기독교를 경험하게 된 계기는 1880년이다. 그는 이 시기 상해를 다녀온 친구로부터 『영환지략』이라는 세계 지리서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양 문명과 그 상징으로서의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1888년 정동(貞洞)에 있던 양관(洋館)을 통해 선교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와 존스(George H. Jones) 등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전해 받은 한문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신앙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후에 한국 개신교 사상 세 번째 한국인 목사로 위임받았으며, 정동감리교회 담임목사, 현 감리교신학대학의 전신인 협성신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초창기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한국 개신교 최초의 변증 신학자로 거명될 정도로 교회사적 비중이 높은 인물이다.

6) 『신학월보』에 연재되었던 『성산유람기』는 이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증명 성산명경』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감리교회사학회에서 발행했던 『신학월보』의 영인본을 확인해보면 『성산유람기』는 제5권 1호부터 연재되기 시작하여 이후 제5권 4·5호 합본(1907)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연재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연재된 분량은 단행본 『증명 성산명경』 전체 76쪽 분량 중 31쪽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폭적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를 전파하고 설득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 문학적 가치를 지니며, 아울러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당대 유행하던 몽유록 형식과 토론체의 양식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적 성취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성을 띤다.

한편 『성산명경』에 앞서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 발표된 『삼인문답』⁷⁾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이 글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전도인’이 북촌의 한 양반집을 방문하여 유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집주인’과 ‘선비’ 사이의 담론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집주인은 관직을 지낸 인물이며, 그 집 사랑채에 거하고 있는 선비 역시 높은 학식을 자랑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독교와 유교 사이의 첨예한 대립 양상을 염두에 둔 서사적 장치로 판단할 수 있다. 먼저 전도인과 집주인 간의 일차적 논쟁은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간주하는 인식의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턴하는 혼 집과 갓고 스희안 사람은 다 형데라. 이곳에 계신 동포들도 구세주의 복음을 드러 계신니가”라는 전도인의 인삿말에 집주인은 “나도 예수교회의 말씀은 드렸거니와 우리나라의 우리 유교도도 더히 흥치 못흐거든 흐물며 타국교를 어는 겨를에 흥흐리오”라고 응대한다. 이는 당시 조선의 민중들이 유·불·도에 대해서는 외래적 종교가 아닌 고유의 전통 종교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태도다. 이에 전도인은 “유불선 삼도가 모도 타국에서 왔거늘 엇지 우리나라 교라 흐느뇨”라며 기독교를 외래종교로 규정하는 논리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데 보다 본격적인 종교 변증은 전도인과 선비 사이에 벌어진 두 번째 논쟁에서 발견된다. 선비는 “도라 흐느거시 근본 흐나히요 두 리치가 업느니 우리가 무슴 교를 흐든지 사육을 막고 턴리틀 잇게흐며 악흔거술 징계흐고 착흔거술 권면흐야 독실히 흥흐면 거룩한 디경에 니를지라. 하필왈 공즈교니 예수교니 부처교니 분별 흘거시 무어시뇨”라며 “태초시에 조화옹의 슈단으로 태극 리치를 좇차 턴작으로 된 산”(이후 『성산명경』에서 ‘성산 명대’로 구체화된 공간) 꼭대기에서 벌어진 다섯 성인의 토론을 소개한다.

7) 『삼인문답』은 『대한그리스도인회보』에 두 차례에 걸쳐 연재된 기독교 변증문이다. 이 글은 뒤에 발표된 『성산명경』이 유·불·선 세 종교에 대한 변증을 시도한 것에 비해 유교적 세계관과의 변증만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최병현의 종교변증이 후대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변증의 폭을 넓혀갔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 인용하는 지문은 『대한그리스도인회보』 제14권 제12호(1900.3.21.)의 62쪽, 제14권 제13호(1900.3.28.)의 68쪽을 참조한 것임을 밝혀둔다.

(1) 그 산 꼭대기에는 다섯 성인이 있어서 서로 담화하며 홍상 한가해야 근심과 걱정이 업스니 다섯 성인은 공부자와 로즈와 석가모니와 구세주 예수씨와 회회교의 모함딕이라 세상 사람이 홍상 그 산에 올라가 다섯 성인과 꺾치 놀고져 하나 첫지는 정성이 부족하고 들지는 문호가 달나 올라 가는 길이 각각 다름이라. (최병헌, 1900.3.21: 62)

(2) 그 산 우혜 아모 사름이던지 올라만 갓시면 다섯 성인을 막업더로 맞나 보렷마는 동서남북에 각각 길이 다른고로 이 길노 가는 사름은 더 길노 가는 사름을 비방하고 동으로 향하는 이는 서으로 향하는 이를 뵈워야아 즈기의 유견더로 서로 식기하다가 부지중에 순전히 착한 도심을 날혀 버리기로 (...중략...) 본연한 성품이 변하여 가든 길을 중도폐지 하니 엇지 그 산 우혜 득달하여 다섯 성인 보기를 바라리오 실노 인식한 일이라 나의 생각에는 무론 아모교하고 진심 진력하여 독실히 행하였시면 반드시 성인 디경에 가렷마는 홍상 사육을 니끼지 못함으로 거룩한 디위에 밋지 못한다 호노라. (최병헌, 1900.3.28: 68)

두 인용문에 드러난 선비의 주장은 인간이 모든 사욕을 버리면 어떠한 종교든지 거룩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 상대주의적 인식의 표상이다. 이는 오직 예수로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절대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세계관이며, 때문에 “구세주 예수씨서는 공칭즈나 로블즈 꺾한 성현이 아니라 곳 하느님이시니 (... 중략 ...) 범상한 성인으로 비교하여 말할 수 업고 태서 각국이나 교왕 금리에 홀노 하나뿐 되시는 구세주시니(최병헌, 1900.3.28: 68)”라는 전도인의 설교가 이들의 고착화된 인식체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다만 뒤이은 『성산명경』에서도 두드러지듯이 초기의 기독교가 유교적 가치 질서와의 대결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을 최병헌의 두 저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에 투영된 유교적 질서의 변혁 의지와도 맥을 같이한다. 그 까닭은 “유교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철저한 유교적인 교양을 가졌던 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질 수 있었다.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유교사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는데, 이들의 활동으로 쉽게 이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광린, 1979: 228).”는 역사가 이광린의 지적처럼, 애니 베어드와 최병헌 선교문학의 주 대상은 유교적 세계관으로 중무장한 질서와의 대결과 변혁이었다. 이러한 세계관의 대결이 최병헌의 경우 『삼인문답』을 거쳐 『성산명경』에 이르는 과정에 지속 심화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기독교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최병헌 선교소설이 갖는 특징이다.

이처럼 최병헌의 선교문학을 앞서 살펴 본 애니 베어드의 소설들과 견주어 볼 때

양자는 공통점을 지님과 동시에 문학적 성취의 차이도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이 기독교의 선교를 위한 목적의식에서 그 극복의 대상으로 유교적 질서를 가장 큰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에 드러난 주된 서사가 유교적 세계관에서 과급된 오랜 구습을 변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나 최병현의 주된 변증 대상이 유교적 가치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언한다. 한편 이러한 구습의 타파를 위한 변혁의 주체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지닌 인물, 혹은 그러한 세계관의 승리로 귀결한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의 선교문학은 공통점을 나타낸다. 이는 선교문학으로서의 목적의식에 충실한 결과적 산물이다. 다만 애니 베어드의 소설이 최병현의 저작들에 비해 보다 문학적 성취가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은 근대적 인간상의 구현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 아울러 소설 문학적 구조가 더욱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로 최병현의 선교문학은 근대적 인간상의 표상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성숙한 자아로서의 내면적 고뇌라든가, 자기 해방의 성취를 위한 자각을 보여주는 인물 구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애니 베어드의 소설에 창조된 인물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근대적 인간상이 표상되고 있다. 이는 『고영규전』의 발단부에 형상화된 주인공 영규의 내적 갈등, 그리고 옥중 회심 장면에서의 심리묘사 등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지극히 개인의 내면적 성향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대적 인간의 자기 해방이라는 근대소설의 구도에 근접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학적 구조의 유연성이다. 최병현의 선교문학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여타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 간의 변증 과정이 도식적으로 전개되고, 그 논변이 일방적으로 기울어짐으로써 독자들에게 어떠한 긴장감도 유발하지 못한다. 또한 고전소설의 서사적 양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한계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애니 베어드의 소설은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생동감 있게 짜여 있으며, 보다 개연성 있는 서사의 전개, 그리고 고전소설의 양식적 특성에서 상당히 벗어나 근대소설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화기 문학적 성취를 보다 높게 평가할 수 있다.

V. 나오는 글

본 연구는 개화기 선교사로 한국에서 일생을 보낸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을 개화기 문학사의 의의에 초점을 맞춰 고찰했다. 그녀는 남편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이후 초창기 부산과 대구 지역 선교사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또한 평양으로 선교지를 옮긴 이후 한국 최초의 대학인 숭실대학을 설립하고, 더불어 한국 근대 교육의 성립에 초석을 다진 점에서도 기여도가 높다. 이런 다방면의 선교적 성과와 함께 한국 문학사에 남긴 그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조명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비록 문학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개화기 문학의 다양성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은 여전히 남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이 개화기 근대문학으로의 이행기에 차지하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애니 베어드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고영규전』과 『부부의 모본』이라는 두 편의 국문소설을 발표했다. 비록 외국인에 의해 발표된 소설이지만,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표현 수단으로 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실상을 중심으로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의 범주에서 다루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전제 하에서 애니 베어드의 소설이 지닌 개화기 계몽의식을 규명하기 위해 2장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표상을 바탕으로 선교 문학적 계몽성을 일별해 나갔다. 애니 베어드의 눈에 비친 한국문화는 미신숭배, 조혼, 가부장적 질서, 남아선호 등의 부정적 요소가 뒤얽힌 극복의 대상이었다. 더욱이 기독교의 전파와 기독교 윤리 의식의 확산이라는 선교 문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반드시 타파하고 나가야 할 요소들이었다. 애니 베어드는 이러한 체제의 변혁을 위한 유연한 수단으로서 문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아울러 두 작품 모두 당대 봉건적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병폐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나아가 기독교적 윤리 의식을 통해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개화기 근대소설들의 계몽의식과 동일성을 갖고 있음도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제3장에서는 애니 베어드의 두 작품을 근대적 소설양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필자는 출간 당시 이 작품들에 대한 장르적 인식이 소설임을 분명히 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기존의 전통적 소설양식과의 대비를 통해 소설 양식적 특성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갔다. 그 일례

로 인물의 형상화가 고전 소설 인물의 전형성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 전개 방식에 있어서도 ‘행복-고난-행복’이라는 고전소설 구조의 반복, 그리고 꿈을 통한 각성을 통해 부분적이긴 하지만 환몽구조의 소설 문법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설적 양식의 특성을 규명했다. 다만 이러한 특성들로 볼 때 여전히 고전적 소설 양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관점을 달리하자면 외국인이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처럼 우리의 전통적 문학 양식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애니 베어드의 두 소설이 이 시기 여타의 신소설들과 마찬가지로 근대소설로의 이행기에 놓인 과도기적 양상을 동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제4장에서 필자는 애니 베어드의 선교문학이 갖는 문학적 성취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시기에 발표된 또 다른 선교소설과의 비교를 시도했다. 그 대상으로 탁사 최병헌의 소설 『성산명경』과 그 실험작에 해당하는 『삼인문답』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애니 베어드의 소설은 한국인 작가 최병헌의 선교소설에 견주어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최병헌의 소설이 여전히 근대적 인간상의 표현에 미숙함에 비해 『고영규전』에서는 이에 대한 극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최병헌의 소설이 인물 구도의 지나친 도식성과 긴장감의 결여가 문제임에 비해 애니 베어드의 경우는 생동감 있는 긴장감 형성, 보다 개연성 있는 서사의 전개 등이 문학적 성취감을 높여주었다.

단 두 편의 작품만으로 문학적 의미와 그 성과를 규정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문학이 아직은 근대적 양식으로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시기에 모국어 가 아닌 언어로서 이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에 부족하지 않다. 또한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선교사(宣敎史), 혹은 교회사(敎會史)적 측면에만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문학사적 조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경완 (2000). 『고대소설과 개화기 소설의 기독교적 의미』. 서울: 월인.
- _____ (2009). “애니 베어드와 문서 선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31-286.
- 김명배 (2009). “윌리엄 베어드와 숭실대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95-152.
- 김병학 (2004). 『한국 개화기문학과 기독교』, 서울: 역락.
- 김영한 (2011). “윌리엄 베어드의 네비우스 방법에 의한 교육선교.” 『기독교철학』. 12호. 151-178.
- 김인섭 (2008). “개화기 소설에 나타난 회심의 두 유형-최병헌의 『성산명경』과 애니 베어드의 『따라 따라 예수 따라 가네』를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 13권 2호. 23-46.
- 김진오 (1927). “故濯斯崔炳憲先生略歷.” 『신학세계』. 12권2호. 99-102.
- 류대영 (2010). “윌리엄 베어드의 교육사업.”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32호. 127-157.
- 박용규 (2009). “윌리엄 베어드와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37-94.
- 박정신 (2009). “역사의 베어드, 베어드의 역사.”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9-36.
- _____ (2011). 『숭실과 기독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변창욱 (2011). “윌리엄 베어드의 선교방법과 교육선교 정책.”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집. 317-340.
- 소재영·김경완 (1999). 『개화기소설』.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양진오 (2006). “근대성으로서의 기독교와 기독교담론의 소설화-『성산명경』과 『경세종』을 중심으로.” 『어문학』. 92. 375-399.
- 유영렬 (1998). 『민족과 기독교와 숭실대학』.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8.
- 윤홍로 (1994). “근대소설의 태동기-암울한 시대인식과 소설.”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 서울: 현대문학. 85-101.
- 이광린 (1979). “개화파의 개신교관.” 『한국개회사상연구』. 서울: 일조각.
- 이상규 (2009). “윌리엄 베어드와 문서 선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53-186.
- 이인성 (2008).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학의 세계.” 『문학과 종교』. 13권2호. 225-250.
- _____ (2009). “애니 베어드의 선교 문학.”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87-230.
- 최병헌 (1900). 『삼인문답』. 『대한그리스도인회보』. 4권 제12·13호.
- _____ (1912). 『성산명경』. 소재영·김경완 (1999). 『개화기소설』.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학예과 편 (2007). 『윌리엄 베어드 박사의 한국선교와 숭실』. 서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편 (2009). 『베어드와 한국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 『신학지남』 1919. 1월호 광고.
- 『신학월보』 1909. 7권 제2·3호-제6호.

ABSTRACT

The Significance of Annie Baird's Novels in Literature History of Enlightenment Period – Focusing on *Goyeonggyu-jyeon* and *Bubueui-mobon* –

Bong-Jun Cha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the missionary literature of Annie Baird, a missionary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who completed her life in Korea. She devoted her life to the missionary work in Korea with her husband, William Baird, and made a major contribution to the missionary work in Busan and Daegu region at the initial stage. She also highly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educa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Soongsil University, Korea's first University, after she moved the mission field to Pyongyang. This study focuses on another achievement of Annie Baird, the major figure in the early stage of Korean missionary history, and is to clarify the literary meaning of her Korean novels, *Goyeonggyu-jyeon* and *Bubueui-mobon*,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 critical awareness about Korean culture revealed in her novel is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e terms of the enlightened consciousness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These two works have equality to the contemporary enlightening novels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at the points that they frankly accuse the injustice and stigma of the feudal Korean society at that time and furthermore present the new vision of future through Christian ethic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basis to define these two works as novel in the components of text, and evaluate the literary achievement by comparing them with other contemporary missionary literature. In conclusion, it is surprising that she used fluent Korean skills though she was a foreign missionary, and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in the time of enlightenment can be given to her works because she freely expressed Korean sentiment by having a command of our traditional prose form appropriately.

Key Words: *Goyeonggyu-jyeon*, novels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christian ethics, *Bubueui-mobon*, missionary literature, Annie Baird

